

[보도자료] 쿠팡, 중소기업인 지원사업 참여업체 매출 1년 새 121%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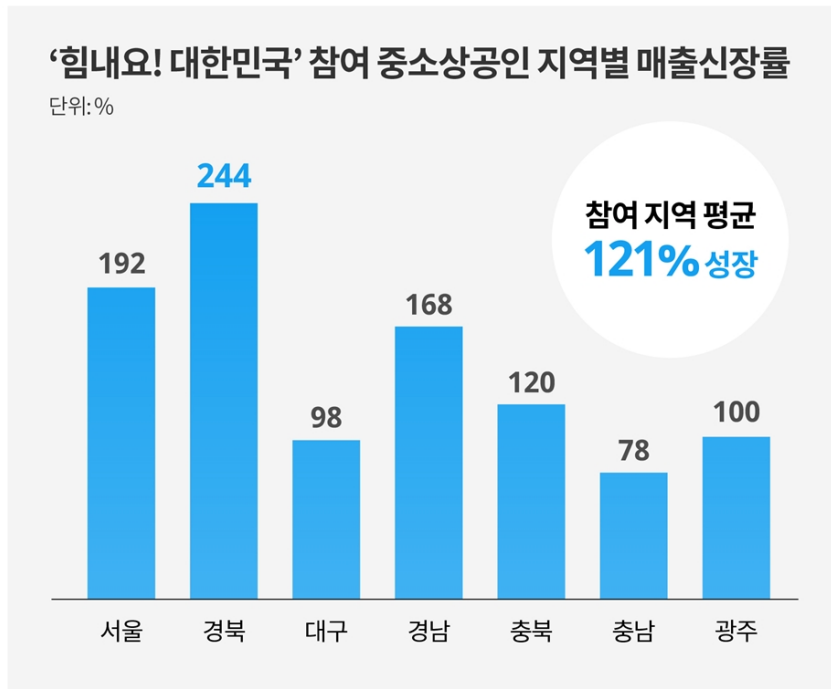
2021. 6. 14.



- ‘힘내요! 대한민국’ 참여 지역 중소기업인 매출 성장세 가팔라
- 전국 지자체 협업체 중소기업인 판로 확대와 광고 및 판촉활동 지원 나서
- 지역상생,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노력 끊임없이 이어 갈 것

2021.6.14.서울— 쿠팡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지역 중소기업인의 매출 성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. 쿠팡은 ‘힘내요! 대한민국’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인의 지난해 매출이 1년새 평균 121%가량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.

쿠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(서울, 경북, 대구, 경남, 충북, 충남, 광주)에 소재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판로확대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‘힘내요! 대한민국’ 캠페인을 진행했다. ‘힘내요! 대한민국’은 쿠팡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소기업인의 상품에 대한 광고비, 판촉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, 쿠팡의 전국 판매망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전국적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.



자료: '힘내요! 대한민국' 캠페인 참여 중소기업인 지역별 총매출액 분석 비교
(2019년 6월-12월 vs. 2020년 6월-12월) 쿠팡 제공



쿠팡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는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인의 성장으로 이어졌다. 지난해 이 캠페인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의 쿠팡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1% 성장했다.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중소기업인 매출성장세 69%를 2배 가까이 뛰어넘은 수준이다. 특히, 코로나19 초기 확산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경북지역의 경우 상품평평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캠페인 참여 지자체 중 가장 높은 244%의 매출신장을 기록해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었다.

유아용 물티슈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순수코리아 양철식 대표는 “코로나19 초기에 경북 청도에 공장이 위치했다는 이유로 거래처와 고객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으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었다. 그때 경북경제진흥원과 쿠팡이 함께한 ‘힘내요! 대한민국’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4% 성장하며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”며 “쿠팡과 함께한 지난 5년간 매출이 9배나 증가하고 직원도 4배나 늘렸다. 기업인으로서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낀다”고 말했다.

쿠팡 박대준 신사업부문 대표는 “쿠팡은 어느 한 편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 다른 한 편이 혜택을 입는 트레이드오프(Trade off)의 관계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혁신적 시스템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 것”이라면서 “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, 올해에도 역시 6월부터 시작될 지자체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